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그분께 쓰임 받으라

Do not use God, but be used by Him

사무엘상 4장 1-11절

-
1.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 쳤더니
 2.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천 명 가량이라
 3.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5. 여호와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6.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나 하다가 여호와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제양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9.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10.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었드려진 자가 삼만 명이었으며
 11.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

1.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2). 그런데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패배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2. ‘질 싸움이 아닌데 졌다’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나요? (3)
3. 이들은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하면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결과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10-11).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레미야 7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부적’을 쓰는 미신과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하고자 했던 모습을 비교해봅시다.
4. 예레미야 7장 3-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5. 홉니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있는 곳에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4)’. 그런데 신명기 12장 5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이 둘을 비교해봅시다.
6.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진단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내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뜻과 말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나요?

7.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인지 분별해봅시다.

